

자연분만 보험적용 논란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연분만의 의료보험 적용대상 제의를 추진하면서 분만실을 폐쇄하는 산부인과 의원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우복희)는 지난 13일 '정상분만 보험비급여 건의안'을 마련해 보사부·대한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정상분만

실제 서울 종로구의 경우 23개 산부인과 의원 중 분만실을 폐쇄한 곳이 15개에 이르고 있다.

보사부 보험급여과 양명생 과장은 "분만과정에서 여성관련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분만은 질병이 아니므로 의료보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수가를 올려달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일

기준에 분만료는 초산의 경우 2만8천9백원, 경산의 경우 2만3천원으로 책정돼 제왕절개술 19만3천원에 비해 훨씬 낮게 돼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만실을 폐쇄해 버리는 산부인과 의원들이 늘어나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임신부들이 몰려 다른 치료를 지연시키는 등의 기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부인과 "질병아니므로 제외 마땅" 주장 보사부 "수가 올려달라는 요구일뿐" 일축 분만실 폐쇄 병원 날로 확대...대책마련 시급

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보험 수가로로는 더 이상 분만진료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이사장은 "실비에도 못 미치는 분만료 때문에 아예 분만실을 폐쇄해버리는 산부인과가 최근 크게 늘고있다"면서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산부인과와 분만실 폐쇄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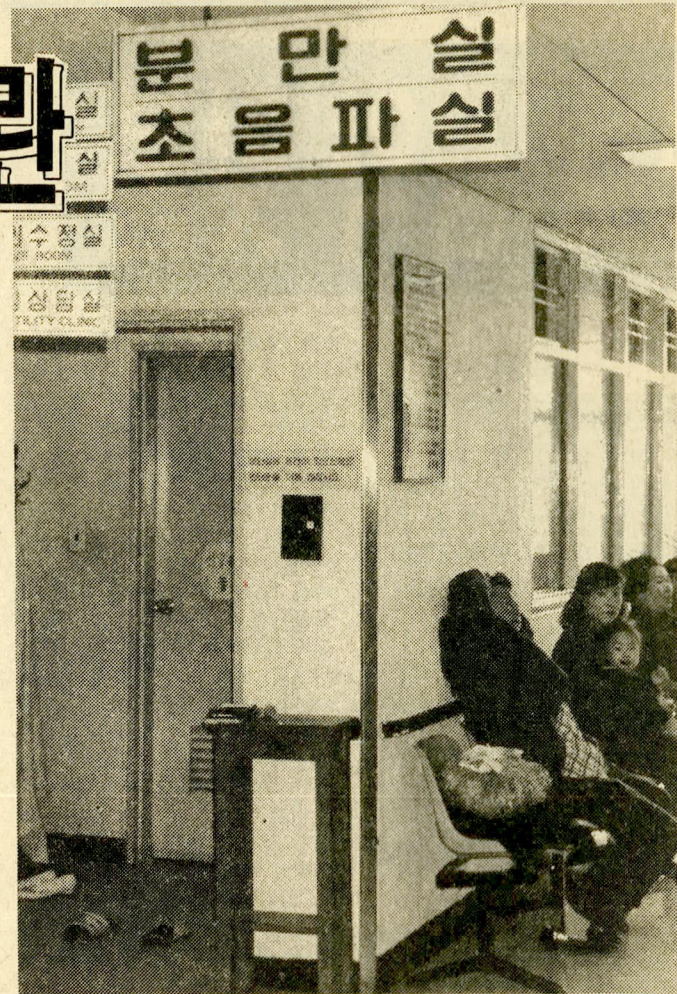
그는 또한 산부인과와 잇따른 분만실 폐쇄는 현행 의료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임신부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자궁암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 등에 비해 10~14시간 정도를 응급대기 상태로 계속 관찰해야 하는 자연분만이 훨씬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 진료수가

또한 새로 생겨나는 산부인과들이 처음부터 아예 분만실을 마련하지 않거나 인공수정 등 특이한 시술만을 주로 하는 등의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자연분만을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점차 줄여가는 추세다.

〈김미경 기자〉



낮은 분만수가로 빚어진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임신부에게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등의 대책마련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